

러시아의 타이어산업현황과 진출환경

李 吭 九*

소련연방공화국의 해체 이후 혼미를 거듭해온 러시아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월 3% 이하 수준으로 완화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경기하강세도 점차 진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루블화의 대달러 환율도 안정국면을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경제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예견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러시아 경제와 산업현황 및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과 현지 진출환경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러시아 경제 및 산업구조현황

(1) 러시아의 경제현황

1991년 6월 엘친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러시아 경제는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어갔다. 공업생산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실업자수는 크게 늘어났으며, 실질임금은 과거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고, 루블화의 가치는 1/100로 절하되었다. 1990년말 이후 1995년 사이에 러시아의 물가수준은 매년 100%가 넘는 상승률에 따라 3,900배가 상승

하였다. 이와함께 주식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은행은 부실경영을 면치 못하였으며,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지난해 러시아의 1인당 GDP는 2,450달러를 기록하여 벨기에의 1/10, 헝가리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또한 금년 3월의 월평균임금은 시장개혁이 시작된 1992년 1월보다 실질기준으로 10%가 하락한 153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월평균급여의 비중은 1992년 2/3수준에서 1995년에는 40%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되풀이되어 온 경제개혁의 실패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였으며,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경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러시아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투자와 사회보장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세수가 증발하여 국내투자율은 개혁정책이 추진된 1992년부터 둔화되어 1994년에는 25%로 하락하였으며, 경제의 일부 부문에 자본이 집중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보다 안정적이며 시장지향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의지는 의심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책당국의 전략과 능력은 명쾌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이나 거시경제안정정책 대부분이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 産業研究院 北美研究팀 責任研究員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1994년 가을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재정,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는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지출억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국내수요를 큰폭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즉, 재정난으로 인해 국영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며 실질가처분소득이 1995년 1월~9월중 12%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매판매는 80%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수요의 둔화는 경기침체를 지속시켜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의 월평균임금이 1994년말의 80달러에서 지난해 말에는 14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여 향후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움직임은 러시아 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급격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한 러시아 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경제개혁을 불신해 온 러시아의 소비자들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며, 기업을 회생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생필품의 구매가 용이해지자 시장개혁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인구 1억 4,800만명의 94%가 거주하고 있는 모스크바 이외 지역의 소비자들은 그동안 모스크바와 여타 지역경제간의 극심한 격차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왔으나 경제개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자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금년 러시아 경제는 작년에 이어 서서히 생산감소율이 둔화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등 거시경제적인 안정을 다질 전망이다. 금년 1/4분기중 러시아 경제는 GDP가 -3.0%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도 10% 수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욱 안정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소폭의 GDP증가와 함께 1992년에 2,300%가 올랐던 소비자물가도 35%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1995년 러시아의 국내생산(GDP)은 1989년의 54%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1996년에는 5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1〉 주요 금리 동향(1995)

(단위: %, 연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앙은행 제용자금리	200	200	200	200	195	195
은행간 신용시장금리						
1개월	175.0	145.4	132.9	119.7	76.7	57.0
1~3개월	190.7	194.0	176.8	147.2	122.2	85.3
3개월 이상	173.0	-	-	155.0	140.0	123.0
평균가중금리 ¹⁾	176.9	153.2	137.7	120.6	79.4	58.6
기업신용금리 ²⁾	189.9	182.4	185.4	179.0	166.8	154.7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주: 1) 은행간 신용시장금리

2) 모스크바지역

〈표 2〉 러시아 1996년 경제전망

(단위: %)

	1/4	2/4	3/4	4/4	1996	1995
공업생산	-0.7	-1.4	1.0	2.5	-3.4	-3.0
소비자물가	10.3	8.7	7.5	6.6	37.5	231.4
1인당실질소득	-8.6	11.4	8.9	11.1	19.7	231.4
월평균실질임금	-5.2	12.0	8.5	10.5	22.5	231.4
실업자증가율	10.0	-0.4	0.2	2.6	13.0	231.4

자료: 러시아 경제문제 및 체제 이행기 연구소

주: 1995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안정세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전망치임.

(2) 러시아의 산업구조

러시아의 산업은 천혜의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자원의 개발을 통해 발달해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산업구조는 시장경제국가들보다 더 높은 에너지와 원자재집약적인 구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하에 경제개혁에 따른 가격자유화가 투입요소의 비용을 상승시키자 기존의 생산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는 적자를 유발하는 재화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소비재부문보다는 중공업과 국방관련산업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서비스부문이 성장하면서 러시아의 산업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표 3〉 부문별 순요소생산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순요소생산		고용	
	1991	1994	1991	1994
산업	42.9	36.7	30.3	27.7
건설업	10.7	11.1	12.0	10.2
농업	13.9	8.2	12.9	14.9
교통·통신업	5.0	15.0	7.7	7.6
기타서비스업	27.5	29.0	37.1	39.6

자료 : OECD, Investment Guide for the Russian Federation, 1996.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산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1992년 러시아 정부의 대폭적인 군비삭감은 방산기업뿐 아니라 관련공급업체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991~1994년중 기계산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기계산업의 생산 감소는 경제개혁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며 과잉생산능력을 가지게 된 중공업부문의 생산 감

〈표 4〉 산업생산 구조변화

	(단위 : %)				1991 ²⁾
	경 상 가 격				
	1991	1992	1993	1994 ¹⁾	
전 기 에 너 지	4.0	6.4	9.2	13.1	12.4
연 료	7.3	18.5	17.2	17.3	25.7
금 속	11.2	16.7	17.1	16.2	7.9
화 학	6.5	8.0	7.2	7.3	2.2
기 계	24.9	20.1	20.0	18.5	19.0
목재·펠프·지류	5.8	4.8	3.9	4.0	13.5
건 설 자 재	3.7	3.3	3.3	3.9	5.4
경 공 업	16.2	7.1	5.2	3.0	2.9
식 품	14.4	10.3	12.4	12.2	8.2
기 타	5.9	4.9	4.6	4.4	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전계서

주 : 1) 1~9월 기준.

2) 1991년 세계가격으로 환산한 생산가치.

소를 유발하였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며 저급품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진 러시아의 경공업생산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기계산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와 원자재산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 러시아의 교역현황

러시아의 대외무역정책 기조는 1991년 1월에 상호경제원조위원회(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가 폐지되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동년 11월 대외교역 자유화에 대한 대통령령이 발효된 후 상반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1992년에는 광범위한 수출규제와 함께 대대적인 수입자유화가 실시되었으나 1993~1994년에는 수출자유화와 엄격한 수입규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분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의 서방국가들에

〈표 5〉 러시아의 교역현황

(단위 : 억달러)

	1992	1993	1994	1995
수 출	115.4	285.0	413.0	594.5
수 입	170.7	427.4	671.5	362.3
수 지	-55.3	-142.4	-258.5	232.2

자료 : IMF, DOT

주 : 1995년은 1월~9월의 실적치임.

대한 수출도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전 CMEA 회원국에서 서방국가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수출은 1994년 4/4분기~1995년 3/4분기중 772억 540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84.7%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4.1%가 증가한 472억 9,500만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299억 1,040만달러에 달하였다. 수출증가에 따라 러시아의 GDP대비 수출비율은 1991년 19%에서 1994년 27%로 증가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재정긴축정책은 루블화의 실질가치를 상승시켜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수입상품의 비중이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러시아의 자동차산업

독립국가연합(CIS)의 자동차 생산은 1987년 이후 점감하여 1993년에는 161만 8,979대의 4륜차를 생산하였다. 이는 4륜차 생산이 최고에 달했던 1981년의 223만대의 72.6% 수준이다. 승용차 생산은 1993년 약간 회복되어 106만 5,439대를 기록하였으나 이 역시 승용차 생산이 최고에 달했던 1979년의 141만 5,000대에 비하면 24.6%가 감소한 수준이다. 독립국가

연합의 트럭과 버스 생산은 198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92년에는 전년대비 20.6%가 감소한 64만 829대를 생산한 후 1993년에는 55만 3,540대를 생산하는 데 그쳐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생산대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생산부진과 함께 수요도 둔화되어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993년 현재 2,340만 5,000대에 달하고 있다. 이중 승용차의 보유비중이 57.9%, 트럭과 버스의 보유비중이 4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신차등록대수는 1993년에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117만 7,000대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승용차등록대수는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79만 6,500대를 기록하였으나 트럭과 버스의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7.0%가 감소한 38만 500대를 기록하였다.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 수출은 7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 35~40만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전년대비 24.6%가 감소한 31만 6,689대에 그쳤다. 이중 승용차 수출은 전년대비 26.8%가 감소한 29만대, 트럭과 버스 수출은 전년대비 11.8%가 증가한 2만 6,689대를 기록하였다. 한편 독립국가연합의 2륜차보유대수는 1993년말 현재 975만 4,821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 생산은 전반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물자부족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정부 및 기업의 재정상태 악화의 영향을 받아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 생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있는 생산업체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 지역에서도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산업은 단기적인

〈표 6〉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산업현황

(단위 : 1,000대)

	생 산			판 매			수 출		
	승 용 차	트럭·버스	전 체	승 용 차	트럭·버스	전 체	승 용 차	트럭·버스	전 체
1990	1,213.6	760.0	1,973.6	850.0	865.0	1,715.0	360.7	47.0	407.7
1991	1,130.0	807.5	1,937.4	814.0	565.0	1,379.0	324.1	19.7	343.8
1992	1,052.6	640.8	1,693.4	746.8	409.0	1,155.8	396.0	23.9	419.9
1993	1,065.4	553.5	1,619.0	796.5	380.5	1,177.0	290.0	26.7	316.7

자료 : 일본자동차신문사, 자동차연감, 각년호.

생산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보일 전망이다. 독립국가연합의 각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선진국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더욱 좋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현지생산을 유도하는 방안과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국내 메이커들에게 세금우대 등을 통해 생산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한편 독립국가연합의 자동차산업은 8개의 중대형조립업체와 7개의 소형조립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1992년을 기준으로 21.7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12.5명이며, 1천명당 8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표 7〉 독립국가연합의 주요 자동차업체

승용차, 다목적차량	AvtoVAZ, AvtoZAZ, AZLKPA, AOGAZ, LuAZ
트럭, 특수차량	AvtoKRAZ, BelavtoMaz, AOKamAZ, ZIL, MAZ, MoAZ, UAZ, UralAZ
버스	Ukranian State Institute of Bus Building, RAF

자료 : Ward's Automotive Yearbook, 1995.

3. 러시아의 타이어산업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만 해도 1,58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와 1,970만개의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생산하여 세계 6위의 타이어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생

산이 급감하여 1994년에는 1,97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데 그쳐 세계 12위의 타이어생산국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독립국가연합의 총생산능력 7,510만개의 26.2%에 불과한 실적으로 그만큼 독립국가연합의 타이어산업이 침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립국가연합중 러시아 타이어산업의 생산능력은 4,998만개에 달하고 있으나 공장가동률이 낮은 수준이며, 생산제품도 승용차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농업기계용 타이어와 2륜차용 타이어에 국한되어 있다. 러시아 타이어산업은 설비의 노후화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따라 생산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러시아 타이어업체들중 세계 50대 타이어업체에 속하는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타이어업체들은 그동안의 통제경제체제하에서 내수지향적인 생산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외국업체와의 생산협력이나 기술협력이 부진하여 그동안 외국 타이어업체의 러시아진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개혁정책이 추진되며 민영화가 추진되자 과거의 독점적인 지배와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구조가 분산관리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타이어업체들은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 타이어업체의 외국업체와의 협력은 주로 설비현대화와 생산·기술 협력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 타이어산업은 산업분류상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에 속해 있으며, 군수산업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왔다. 아직까지 러시아 타이어산업은 여타산업에 비해 개혁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으며, 주식의 일반매각 등을 통한 소유권의 분산, 이전도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도 부진한 실정이나 일부 생산물량이 소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 점은 개혁정책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 타이어업체들이 생산한 타이어의 국내판매는 국가공급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왔으나 개혁정책의 추진 이후 일부 판매물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타이어판매가 일반 유통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업체들은 원자재나 시설재의 독자적 구매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역이나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가격 공급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타이어산업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아직까지 받고 있으며, 타이어 코드, 합성고무, 고무약품 등과 같은 원자재의 공급부족과 설비와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러시아 경제의 고물가로 인해 타이어용 원자재와 완제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구상무역의 비중이 높으며, 원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기업들은 재고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타이어업체의 자본회전율도 낮은 편이며, '90년대 들어서며 공장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편 독립국가연합의 타이어수요는 자동차 생산통계를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독립국가연합의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에 놓여 승용차 1대 생산당 신차용 타이어 5개, 상용차 1대당 8개의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타이어 교체율을 운행중인 승용차인 경우 연 1개, 상용차

의 경우 연 1.5개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시산 결과 1993년 독립국가연합의 타이어수요는 3,945만 4,000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상용차용 타이어의 수요가 승용차용 타이어의 수요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중 신차용 승용차 타이어의 수요가 전체수요의 13.5%, 신차용 상용차 타이어가 11.2%, 교체용 승용차 타이어가 36.4%, 교체용 상용차 타이어의 수요가 38.9%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8〉 독립국가연합의 타이어 수요(1993)

(단위 : 1,000개)			
	승용차	상용차	전체
신차용	5,327	4,428	9,755
교체용	14,348	15,351	29,699
합계	19,675	19,779	39,454

한편 러시아 국영 타이어업체들의 민영화가 추진되자 미국과 유럽의 타이어 유통업체들은 러시아 타이어업체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업체중에서는 Tat사와 Omskshina사의 민영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업체로는 굳이어사가 구소련연방중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틱 3국에 대한 투자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에 대한 투자진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슬로바키아공화국의 Matador AS사는 러시아의 Omskshina Tire사와 51대 49 비율로 1억 5,000만달러를 합작투자하여 옴스크공장의 승용차용 래디알 타이어 생산능력을 1997년까지 연산 130만개로 확대한 후 점차 생산능력을 300만개까지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사는 옴스크공장에서 연 30만개의 트럭용 래디알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Mata-

(표 9) 독립국가연합의 타이어 생산업체현황

(단위 : 명, 만개)

국 가	설립 년도	종업 원수	생산제 품 ¹⁾	생산능력 (년)
카자흐스탄	1981	6,147	1,3,4	450
벨로루시	1972	14,948	1,3,4	517
러시아				
Barnaul Tire	1968	7,100	1,3,4	303
Kirov Tire	1943	6,950	1,3,4	368
Krasnoyar Tire	1960	4,504	1,3,4	205
Moscow Tire	1945	3,720	1,3	275
Tat Tyre	1974	16,000	1,3,4	1,245
Omskshina Tire	1942	12,700	1,3,4,5	573
St. Petersburg Tire		1,520	3,5	232
Sverdlovk Tire	1944	2,650	3,5	265
Volzhsky Tire	1964	5,080	1,3,4	349
Yaroslavl Tyre	1932	11,051	1,3,4	699
우크라이나	1961	23,694	1,3,4,5	1,166
아르메니아	1944	2,167	1,3,4	186
아제르바이잔	1960	2,530	1,3,4,5	193

자료 : European Rubber Journal, Global tyre report 1995/96년에 의거 작성.

주 : 1) 1(승용차용), 3(트럭/버스용), 4(농업기계용), 5(2륜차용)

dor사는 자본투자와 함께 기술노하우의 제공과 현지 근로자의 교육까지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4. 러시아 진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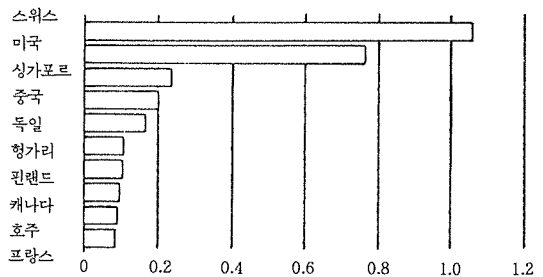
외국기업의 대러시아 직접투자금액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금년 1/4분기 현재 누적액 기준으로 외국인 대러시아 직접투자가 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1991년~1995년 10월중 외국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액은 49억달러에 달하였으며, 1995년에는 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기업의 러시아진출 사례로는 화학업체인 듀폰사를 선두로 화장품, 연초, 식료품업체의 진출이 뒤따르고 있으며, GM사도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국별 대러시아 직접투자현황을 1994년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위스가 최대의 직접투자국의 위치를,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 중국, 독일, 헝가리,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잇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스와 미국이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에 스위스를 제치고 최대의 대러시아 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업종별로 볼 때 외국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60%가 광업과 제조업, 특히 에너지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재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원유와 가스개발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스위스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그림 1) 국별 대러시아 직접투자현황(1994년말 기준)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Financial Times.

한편 러시아의 업종별 임금격차는 매우 심하여 가스산업의 월평균임금이 437달러인 데 비해 석탄산업의 월평균임금은 199달러, 섬유산업의 월평균임금은 48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임금격차도 극심하여 광업과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 시

베리아의 Magadan 지역의 임금은 월평균 246달러로 코카서스 산악지대의 목축지역인 Dagestan 지역의 월평균임금을 8배나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입지로는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거나 항만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투자구조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지역의 다변화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영문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조세유인에서부터 용수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모스크바 인근 지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Tatarstan, Nizhny Novogorad와 Samara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산업이 비교적 잘 발달해 있으며, 양질의 가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의 200마일 남쪽에 위치한 Togliatti시는 60년대 피아트사가 설립한 대형자동차 공장이 시전체 인구 75만명의 20%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

(표 10) 모스크바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단위 : 100만달러)

	1994	1995
모 스 크 바	189	889
타 타 르 스 탄	19.3	63
니즈니노보고라드	6.9	46

자료 : Wall Street Journal.

주 : 1995년은 1월~9월중 실적치임.

최근 GM은 타타르스탄지역에 장기적으로 10억달러를 투자하여 쉐비 브레이저와 오펜 벡트라의 소형승용차를 합작생산하기

로 결정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는 GM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GM이 타타르스탄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타타르스탄 정부의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과 조세감면제도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크렘린과의 협약을 통해 여타 러시아 지방정부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정부와의 협상없이 직접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직접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등 러시아의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있다.

한편 미국기업은 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과 투자진출에는 신중성을 띠어 왔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독립국가연합 투자진출형태는 합작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는 합작투자를, 에스토니아에 대해서는 단독진출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그동안 현지에서 행해왔던 소규모 서비스 및 지원활동과 소매판매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현지 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직접판매 및 마케팅 기능과 제조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들은 대러시아 직접투자 진출업종을 유통업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기업들은 현지진출에 앞서 독립국가연합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위험의 형태와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진출형태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이 러시아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기업들의 전통적인 시장진출 전략인 최초진입자(first mover)의 지위확보를 통한 시장선점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상대적인 투자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시장잠재력이 크고, 러시아 소비자들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가 다소 안정화되기 시작하자 시장선점 차원에서 러시아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기업들은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며 현지진출에 신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국가연합이 아직까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나 현지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며 완전소유형태의 외국기업의 단독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진출로 1990년~1994년중 외국 기업들의 현지고용은 동기간중 러시아의 총고용이 8%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5배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업체의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평균임금보다 50%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비록 외국기업들의 고용이 러시아 전체고용의 0.5%에 불과하나 이들 기업들은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수출의 9%와 수입의 13% 가량을 담당하며 1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벽으로 세율이 너무 높고 소청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실행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점을 들 수 있다.

5. 시사점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경제

개혁은 74년간의 중앙통제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목적은 놀라운 속도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소련시절 GDP의 70%에 달하였던 정부지출은 군수산업의 해체에 따라 1995년에는 35% 수준으로 반감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GDP대비 국방지출은 중립국인 스웨덴보다도 적으며, 4,000만명이 러시아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금융시장의 자유화 이후 2,500개에 달하는 상업은행이 새로이 생겨났으며, 이중 몇 개의 은행은 성공적인 영업실적에 따라 대형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90만개의 민간 소기업들이 창업되었으며, 러시아 GDP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경제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기업수는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러시아 기업중의 일부는 능력있는 경영자들의 관리하에 낮고 유연성있는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의 개혁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WTO와 OECD가입을 위한 시장개방화도 순조로이 진행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추진실적을 1995년말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DP대비 민간경제활동 비중은 1994년의 50%에서 1995년에는 55%로 증가하였다. 기업개혁면에서는 대형국영기업의 25% 가량이 민영화되었으며, 중소형 국영기업의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고, 금융과 보조금정책의 질서가 회복되었

으며, 파산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시장·무역자유화면에서는 가격자유화가 진전되고 수입수량제한이 철폐되었으며, 단일환율제가 실시되고 대부분의 경상거래규제가 폐지되었으며, 경쟁정책이 도입되었다. 금융제도 자유화면에서는 금리자유화가 진전되고 정책금융과 금리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다. 투자제도면에서는 아직까지 규제내용이 불투명한 조항이 다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규제와 과실송금 등에 대한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경제의 장래는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동안 개혁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국방부문의 수요감소와 군수산업지향형 산업구조의 개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방세계의 원조가 1990년 독일통합 이후 구서독 정부가 지출한 6,000억달러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정도의 지원금액은 구동독의 10배에 달하고 있는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경제개혁 수행에 충분한 액수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외에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지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온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최근 IMF와의 차관조건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러시아는 재정건실화 등 경제정

책 운용상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금년 1~2월중에 러시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3.72%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의 2.94%를 크게 상회하며 법정 재정적자 상한비율인 3.85%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사항인 16조루블에 달하는 체첸 복구 지원, 장학금 및 연금의 인상, 최저임금 및 연금의 물가연동제 실시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 대선을 치루면서 남발된 각종 공약사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인플레이션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를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의 탈정치화, 기업경영의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 자본시장의 확대와 범죄와 부패의 근절 등 개혁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개혁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독립국가연합의 타이어 원료인 고무소비가 1990년의 249만톤에서 1994년에는 42만 5,000톤으로 급감하였으며, 금년에 65만 2,000톤으로 증가한 후 2000년에도 79만 3,000톤 수준으로까지 밖에 증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시장개방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러시아시장은 국내 타이어업체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의 타이어, 세계의 타이어